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ume 11 Number 11, 19~35
ISSN 1738-8368(Print)
ISSN 2384-4078(Online)
http://dx.doi.org/10.14251/krcem.2015.11.11.19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인식 및 재난준비도

Experienc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Chung-hee Woo*, Jae Yong Yoo**, Ju-young Park***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dong, Seo-gu, Daejeon, Korea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experienc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eded for development of the disaster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The average score of disaster awareness was 3.71 out of 5 points, while preparedness of disaster was 0.54 out of 4 point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on the association between awareness on disaster and preparedness on disaster. However, awareness of seriousness of disast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preparedness on disaster (r=.10, p=.036). We argue from this study that the disaster nursing educational curriculum would help improve th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students and disaster education should begin as early as in the undergraduate level for better linkage to the actual clinical practices.

Key words: disaster, experience, awareness, preparedn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간호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경험,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와 개인의 재난준비도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재난인식도는 5점 기준으로 평균 3.71점이었고 재난준비도는 4점 기준으로 총점 0.54점이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 인식도와 재난준비도에 차이가 있었다.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전체항목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재난인식의 하위 개념인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난준비도

* Tel. +82-042-600-6352. E-mail. createjane@konyang.ac.kr
** Tel. +82-042-600-6432. E-mail. jaeyong@kony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600-6341. E-mail. jypark@konyang.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ug. 18, 2015 / Revised: Oct. 26, 2015 / Accepted: Oct. 30, 2015

© 2015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www.kci.go.kr

(r=.10, p=.036)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 인식도와 재난준비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재난 인식도와 재난준비도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추후 간호대학생이 재난경험에 노출되어 재난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실제 재난에 대응·대비 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실제 임상실무와 연계를 위하여 학부에서부터 재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재난, 경험, 인식, 준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재난(Disaster)이란 자연적 또는 인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지역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말한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예로 지난 3년간 도시의 인적·사고요인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가 총 280,607건(2010년)에서 303,707건(2012년)으로 8.2%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6,758명(2010년)에서 7,322명(2012년)으로 8.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이러한 재난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던 선진국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1차 피해를 줄이고, 2차적인 재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Rheem, 2014). 특히 생존자들의 추후 삶의 과정을 관찰하고 심리적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재활을 원활하게 돕는 재난간호가 대두되고 있으며(Choi, 2005)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재난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교육과 준비에 주목 하고 있다(Kim, 2011).

간호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가장 먼저 체계적인 재난교육이 2005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는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재난현장에서의 간호와 응급처치에 초점을 두고 매년 1회, 96시간, 재난간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14). 또한,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4)에 의하면 국내 각 대형병원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계획, 지역사회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한 파악, 재난관리 계획에 따른 모의훈련 수행 여부의 3가지 조사항목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재난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자 꾸준히 재난간호교육과정에 간호사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 부합하면서 임상과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 교육기관에서부터 재난간호 및 재난대비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014)의 연구에서는 실제 간호학생 때 재난에 대한 교육경험이 42.8%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76.8%의 간호사가 재난교육이 필요하다(Ann, *et.*

www.kci.go.kr

al., 2011)고 언급하였다. 현재 간호교육 기관에서의 재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간호학부 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에서 응급과 재해간호 교과목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06). 이로 인해 재난관리에 있어서 학부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한다면 재난간호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는 재난의 발생과 그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내외 간호연구자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서비스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선순위과제를 도출한 연구(Oh, *et. al*., 2015)에서와 같이 재난 관련 간호서비스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간호포럼에 발표된 논문(Choe, *et. al*., 2012) 539편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 중 재난, 학교, 병원 등이 빈도가 높은 주요어로 나타났지만, 국가별 한국에서는 네 개의 메타파라다임을 중심으로 환경영역의 주요어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물론 환경의 개념이 재난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환경영역에 재난이 포함되는 개념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재난간호 체계 구축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학부에서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대비에 대한 조사(Kang, *et. al*., 2012)와 재해관련 경험, 재해간호 인식 및 핵심수행능력 간 관계에 대한 연구(Ahn & Kim, 2013)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재해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 재난간호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포함한 핵심수행능력 측정은 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난간호를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지 않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개인 재난준비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재난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교육되고 숙련된 의료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 재난간호를 이수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경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에 대한 개인의 준비정도를 파악하고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재난간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경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재해간호 교육과정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 및 재난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www.kci.go.kr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재난간호를 이수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 재난에 대한 인식 및 재난준비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병원의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IRB No. 12-27), 연구 대상자는 201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D시에 소재하는 일개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재난간호를 이수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4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대비에 대한 선행연구(Kang, *et. al*., 2012)를 참고하여 효과크기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80.0%, 효과크기 0.15으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270명을 요구하였으나 404명을 대상자로 표출하여 필요로 되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료 수집 방법, 사용 용도,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작성 도중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기술된 서면 동의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하였다. 자가기입식 설문자료에는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3.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재난과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 도구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의 재난 관련 기관인 소방방제청과 미연방비상관리국의 웹 검색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간호학 교수 3인과 재난간호 교육과정 이수 경험이 있는 응급실간호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얻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재난경험(0.83), 재난인식(0.83), 재난준비도(0.80)의 Content Validity Index(CVI) 값을 구하였다. 간호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내용 및 사용방법, 형식의 사전조사를 시행 한 후 최종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재난경험 6문항, 재난에 대한 인식 6문항, 재난준비도 5문항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재난경험

www.kci.go.kr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으로 재난사건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적·사회적 원인으로 규정한 호우, 강풍, 풍랑을 포함한 태풍, 대설, 산사태, 지진의 자연재난과 폭발, 가스, 대형 교통사고, 화재,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의 인적·사회적 재난의 10개 사건을 제시하여 조작적 정의로 제시하였다. 재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서 6문항의 재난경험을 포함한다. 각 항목은 최근 2년 내 직접 재난 경험유무, 재난 관련정보 획득유무, 재난 교육 경험유무, 재난간호 들어본 경험유무, 응급처치 교육유무, 재난지역 봉사 경험유무로 '예'와 '아니오'로 구성되었다.

2) 재난인식도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서, 재난 인식정도에 대한 Likert형 5점 척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6개 문항(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 정도,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 정도,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재해 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교과목 개설 필요성 인식 정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는 .730이었다.

3) 재난준비도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재난 대응능력에 대한 단순한 인식의 정도로써 실제 수행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Ahn & Kim, 2013)고 하여 재난간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수행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필요한 정도나 중요한 정도를 알고 그 준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이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하여 실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7)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5개 문항(재난에 대한 개인 지식, 비상물품 준비, 대처 계획, 비상장소 선정, 비상연락처 리스트 준비)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준비되지 않았다'=0점, '매우 잘 준비되었다'=4점)'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준비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는 .708이었다.

4. 자료분석

www.kci.go.kr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난경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인식 및 재난준비도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의 결과에 따라 사후 검정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학생을 편의표출에 의해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4)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 n (%)
Age (years)		21.54±2.13
Gender	Male	45(11.1)
	Experience army	38(84.4)
	Female	359(88.9)
Grade	1st	128(31.7)
	2nd	101(25.0)
	3rd	81(20.0)
	4th	94(23.3)
Religion	Christianity	119(29.5)
	Catholic	39(9.7)
	Buddhism	28(6.8)
	Non	218(54.0)
The level of income	High	23(5.7)
	Average	336(83.2)
	Low	45(11.1)
Hometown	Metropolitan city	187(46.3)
	Small and medium city	158(39.1)
	Rural unit	59(14.6)
Major satisfaction	Bad	35(8.7)
	Average	79(19.6)
	Good	290(71.7)

www.kci.go.kr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은 평균 21.54세였다. 총 404명 중 여학생이 359명(88.9%), 남학생이 45명(11.1%)였으며 남학생 중 군입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명(84.4%)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128명(31.7%), 2학년 101명(25%), 3학년 81명(20%), 4학년 94명(23.3%)로 분포되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218명(54%)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중 정도인 경우가 336명(83.2%)으로 많았다. 또한, 자라온 곳이 대도시가 187명(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290명(71.7%)으로 가장 많았다.

2. 재난경험, 재난인식도 및 재난준비도

<Table 2> Disaster experiences,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N=404)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 n (%)
Disaster experiences	Experience of disaster	Yes	36(8.9)
		No	368(91.1)
	Experience provided information related disaster	Yes	276(68.3)
		No	128(31.7)
	Experience of disaster training	Yes	263(65.1)
		No	141(34.9)
	Experience heard about disaster nursing	Yes	71(17.6)
		No	333(82.4)
	Emergency drill experience	Yes	251(62.1)
		No	153(37.9)
	Service experience of the disaster area	Yes	28(6.9)
		No	336(93.1)
Awareness of disaster	Concerns for the loss		4.33±0.77
	Importance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4.08±0.87
	Serious for disaster		3.65±0.95
	Needs for disaster curriculum		3.64±0.93
	Sensitivity in promoting disaster prevention		3.42±0.83
	Probability of disaster		3.15±0.96
	Total		3.71±0.58
Preparedness of disaster	Personal knowledge of disaster		0.29±0.45
	Survival kit		0.05±0.23
	Plan		0.07±0.26
	Emergency site selection		0.05±0.22
	Emergency contact list		0.06±0.25
	Total		0.54±0.87

대상자의 재난경험, 재난인식도 및 재난준비도는 <Table 2>와 같다.

재난경험이 없는 경우가 91.1%,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8.3%, 재난 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65.1%, 재난간호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82.4%,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2.1%, 재난장소에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1%로 그렇지 않은

www.kci.go.kr

경우보다 높았다. 재난인식도는 5점 기준으로 평균 3.71점이었고 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가 4.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난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4.08점,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3.65점, 교과목 개설 필요성 인식 3.64점,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 3.42점,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 3.15점 순이었다. 재난준비도는 4점 기준으로 총점 0.54점이었고 문항의 점수가 낮아 의미를 갖기 어렵지만 문항별 단순 점수비교를 할 경우 재난에 대한 개인 지식정도가 0.2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재난 계획이 0.07점, 비상연락처 리스트 마련이 0.06점, 비상물품 준비와 비상장소 선정이 0.05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인식도와 재난준비도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인식도와 재난준비도는 <Table 3>과 같다.

재난인식도는 학년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F=2.43, p=.034), 전공에 아주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F=7.86, p<.001),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7.81, p=.017) 유의하게 높았다. 재난준비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t=2.22, p=.027), 직접적 재난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04, p=.015), 재난훈련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4.16, p=.021), 재난간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18.45, p=.039),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8.66, p=.003), 재난지역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6.77, p=.005) 유의하게 높았다.

www.kci.go.kr

<Table 3>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aster experiences

(N=404)

Variables	Awareness of disaster				Preparedness of disaster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65±0.48	-.67	.499		.82±1.02	2.22	.027	
Female	3.71±0.59				.51±0.85			
Grade								
1st	3.77±0.52				.57±0.42			
2nd	3.77±0.65	2.43	.034		.52±0.46	.42	.831	
3rd	3.69±0.46				.59±0.44			
4th	3.67±0.62				.60±0.44			
Religion								
Christianity	3.73±0.56				.47±0.69			
Catholic	3.68±0.53	.42	.735		.53±1.02	.60	.615	
Buddhism	3.80±0.62				.67±1.12			
Non	3.69±0.59				.57±0.90			
The level of income								
High	3.88±0.48	1.23	.291		.86±0.86	2.65	.071	
Average	3.70±0.58				.55±0.89			
Low	3.65±0.61				.35±0.64			
Hometown								
Metropolitan city	3.71±0.60	.04	.954		.52±0.86	.18	.835	
Small and medium city	3.70±0.53				.58±0.93			
Rural unit	3.68±0.61				.52±0.72			
Major satisfaction								
Bada	3.45±0.56	7.86	<.001	b<c	.14±0.37	1.94	.102	
Averageb	3.54±0.56				.65±1.09			
Goodc	3.94±0.51				.66±0.94			
Experience of disaster								
Yes	3.84±0.53	.24	.140		.88±0.85	.04	.015	
No	3.69±0.58				.51±0.87			
Experience provided information related disaster		7.81	.017			.51	.372	
Yes	3.76±0.52				.57±0.88			
No	3.59±0.67				.49±0.85			
Experience of disaster training								
Yes	3.74±.56	.51	.473		.61±0.91	4.16	.021	
No	3.64±0.61				.41±0.78			
Experience heard about disaster nursing		.56	.353			18.45	.039	
Yes	3.65±0.53				.81±1.25			
No	3.72±0.58				.49±0.76			
Emergency drill experience								
Yes	3.67±0.59	.29	.085		.64±0.97	8.66	.003	
No	3.77±0.55				.39±0.67			
Service experience of the disaster area		.35	.559			6.77	.005	
Yes	3.64±0.59				1.00±1.38			
No	3.71±0.55				.51±0.81			

www.kci.go.kr

4.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N=404)

Variables	Awareness of disaster					Preparedness of disaster
	Probability of disaster	Sensitivity in promoting disaster prevention	Serious for disaster	Importance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Needs for disaster curriculum	
Awareness of disaster						.05(.304)
Concerns for the loss	.13(<.001)	.18(<.001)	.28(<.001)	.30(<.001)	.22(<.001)	-.09(.066)
Probability of disaster		.13(.009)	.25(<.001)	.23(<.001)	.22(<.001)	.07(.155)
Sensitivity in promoting disaster prevention			.44(<.001)	.45(<.001)	.29(<.001)	.06(.204)
Serious for disaster				.53(<.001)	.43(<.001)	.10(.036)
Importance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50(<.001)	.00(.837)
Needs for disaster curriculum						.02(.575)

재난인식 정도는 재난준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r=.05, p=.304). 하지만, 각 문항을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재난인식의 하위 개념인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난준비도(r=.10, p=.036)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난인식의 하위 개념인 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는 재난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r=.30,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r=.28, p<.001),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r=.22, p<.001),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r=.18, p<.001),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r=.25, p<.001)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재난 가능성 인식 정도는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r=.25, p<.001)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재난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r=.23, p<.001),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r=.22, p<.001),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r=.13, p=.009)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은 재난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r=.45,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r=.44, p<.001),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r=.29, p<.001)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는 재해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r=.53, p<.001)와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r=.43, p<.001)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난

www.kci.go.kr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r=.50, p<.001)과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Ⅳ. 논의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에서 보듯이 기존의 안전행정부 안전처,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출범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와 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Chun, 2014). 이렇듯 재난은 정책을 바꿔놓을 정도로 모든 분야를 강타 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또한 비상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는 재난의료 활성화와 거점병원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15년도에 208억 원으로 9.5배 예산 확대를 밝혔으며, 특히, 재난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부분은 신규예산 편성 되어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을 현행 전국 65개에서 105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 시 재난의료지원팀의 숙련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Choi, *et. al.*, 2014). 재난의료지원단의 의료진들도 중증도 분류, 개인 보호구 착용, 특수재난 대응법 등은 추가적인 전문 교육 없이는 임상 경험을 얻는 데에 제한이 있으므로(Hong, 2014) 의료인력의 재난 교육과정 및 재난간호 교육과정 이수는 임상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임상 전 단계에 초점을 두어 정규 교육과정으로 재난간호학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인식 및 준비도를 파악하고,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 중 91.1%가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6.9% 만이 재난지역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으며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68.3%, 재난에 대한 교육경험이 65.1%, 응급처치 교육경험이 62.1%인 반면 재난간호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82.4%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재난의 예상되는 피해자로써의 재난이나 재난교육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간호학을 전공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시 간호사의 역할이나 재난간호 활동 및 재난간호 교육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인식도는 평균 3.71점으로 5점 만점기준 74.2%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91.1%가 재난경험이 거의 없는 대상자들이지만 재난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et. al.*(2012)의 연구에서 재난관심 점수(만점의 63.1%)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 & Kim (2013)의 연구에서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와 재난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로 조사한 재난인식 점수(만점의 74.4%)와 유사하였다. 재난인식도가 높은 하위 개념을 살펴봤을 때,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4.33점)가 상당히 높으며 재난간호 교육에

www.kci.go.kr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4.08점)하고 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3.65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대상자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재난간호학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임을 전제할 때, 최근 국내의 세월호 사건과 국외의 테러 등 각종 재난으로 인식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하위개념 중 교과목 개설 필요성 인식(3.6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재난간호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82.4%였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재난 예방 및 대응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대중매체의 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3.42점)은 향후 10년 이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 점수(3.15점)가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7)에서 재난의 인식문제로 재난을 볼거리로 인식하는 경향과 여전히 안전기대감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팽배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재난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하는 간호대 학생들이 개인이 아닌 전문가로써 전문 수준 교육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자가보고 형식의 재해간호 수행능력 인식 측정은 실제 수행능력과 차이가 있다라고 제시한 Ahn & Kim(2013)의 제한점을 토대로 마련된 재난준비도 측정은 재난과 관련된 개인의 재난 대비정도를 말한다. 4점 만점에 총점 0.54점으로 재난 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낮아 문항 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문항별 단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재난에 대한 개인 지식정도가 0.2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재난 계획이 0.07점, 비상연락처 리스트 마련이 0.06점, 비상물품(재난키트) 준비와 비상장소 선정이 0.05점으로 나타났다. Kang, *et. al.*(201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89.3%가 피난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난대비용 가방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도 물이나 음식, 기타 필수용품을 갖춘 재난대비용 키트를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던 이유는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재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방법으로써 재난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 단계별 행동지침과 필수용품 준비를 위한 비상키트 구성, 대처를 위한 명확한 계획, 가족이나 친척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비상장소 선정, 비상연락처 리스트 준비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인식도는 학년이 낮고 전공에 아주 만족하는 경우와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저학년일수록 재난인식도가 높았던 이유는 모든 학년이 재난관련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한 인식 보다는 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재난의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Ahn & Kim (2013)의 연구에서 재난관련 교육과정 경험이 재해간호 인식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듯이 교육을 한 번 이라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재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재난준비도는 남학생, 직접적 재난경험이 있는 경우, 재난훈련을 받은 경우, 재난간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난지역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 중 군입대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비율이 84.4%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군대에서 재난에 대한 군사훈련을 일부 이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재난과 관련되어 이론 교육과 실제 재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재난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난인식 정도와 재난준비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은 재난피해자 시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를 통하여 재난 피해자의 문제가 개인을 넘어 가족의 문제이고, 이웃과의 교류 문제 및 사회 공동체의 균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과 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단기간의 집중적 관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 또한 재난인식과 준비도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여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교육적 초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의 연계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재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기존의 유사한 교과목에서 재난에 대한 조기 이해가 선행되도록 하여 전문가로서의 인식에 대한 자각과 준비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재난인식의 하위 개념인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난준비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재난지역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적으로 재난을 체험하여 심각성을 느낄수록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난의 실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내게도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성이 높을 때 그로인한 심리적 공황이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교육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어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뮬레이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고려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의 심각성에 따른 대상자 간호는 체계적인 심리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히 재난발생시 간호분야의 역할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높이고 또한 보건 정책적으로도 간호역할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인식의 하위 개념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고 재난 예방 및 대응법에 관하여 유관기관이나 대중매체의 홍보에 민감한 정도가 높거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인식이 크거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진 등의 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수록 재난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그리고 재난 간호 교육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교과목 개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그 내용은 각 재난에 대한 개인 차원에서부터 직장, 지역사회, 국가적인 범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과목 구성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재난지역 거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와 연계 된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www.kci.go.kr

결론적으로 대상자의 재난경험이 재난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재난준비도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재난에 대한 인식의 하위개념과 개인의 재난준비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의 종류를 막론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전략 및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특히,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과 준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학년부터 재난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학교육 정책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재난에 대한 인식 교육이 교과목 운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난 간호교육이 실제 임상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연계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연계성 있는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의 경우 아직 재난에 대한 간호관련 단체에서의 인식 및 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경험 즉, 대상자가 재난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그 이유와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와 개인의 재난준비도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 인식도와 재난준비도에 차이가 있었고, 재난 인식도와 재난준비도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추후 간호대학생이 재난경험에 노출되어 재난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실제 재난에 대응·대비 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및 이의 확충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재난분야의 전문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Rheem, 2014) 실질적인 재난관리 업무 향상을 위하여 간호교육자 및 학생 모두 재난간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고취가 필요하며,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핵심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잘 개발된 교육과정을 통해 재난대비 교육을 받은 의과대학생들의 재난대비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이고 또한 재난지식은 유의하게 상승되었다(Parrish, *et. al.*, 2005). 재난에 대한 경험이 재난인식과 준비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간호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재난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주요 지역별 거점대학에 재난위기대응센터 지정 등의 대학교육과의 협력을 제안해 본다. 또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또는 예측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과의 연계된 협력적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www.kci.go.kr

References

Ahn, E and S. Kim. 2013.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6): 257-267.

Ann, E. G., K. L. Keum, and S. Y. Choi. 2011. A Stud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of Nurses in Some Korea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9(1): 94-109.

Choe, M., K. Bang, N. Kim, S. Kim, and Y. Kim, *et. al.* 2012. Nursing Research Trends Analysis Using 2011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Abstrac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32-344.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32

Choi, J., G. Kim, E. Lee. 2014. Current Status and Future Solution of Disaster in Korea. *Medical Policy Forum*. 12(4): 10-23.

Choi, N. 2005. Narrative Analysis on Survivor's Experience of Daegu Subway Fire Disaster - The Hypothetical Suggestions for Disaster Nursing Practice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407-418.

Chun, B. 2014. Definition of Disaster, Classification and Efficacy of Public Health. *Medical Policy Forum*. 12(4): 24-31.

Hong, K. 2014.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Management, Problem and Solution. *Medical Policy Forum*. 12(4): 41-46.

Kang, K. H., D. Uhm, and E. Nam. 2012. A Study on Disaster Experience and Prepared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424-435.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424

Kim, J. W. 2011. Development of Nurse's Guideline for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Disas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4. *The guideline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ccreditation-general hospital, ver 2.0.*

Lee, *et. al.*, 2006. *Emergency and Disaster Nursing*. Seoul: Hyunmoons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 *Efficiency of Measures on 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Suppor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Annals of Disaster, 2012*.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7. *The Problem of Disaster Management.*

www.kci.go.kr

http://www.dpsi.or.kr/dpsi/home/anti_disaster/bbs.php?id=menu01&q=view&uid=3(2015. 4.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Fund Proposal 2015.*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Oh, E. G., Y. S. Jang, S. L. Gong, and Y. J. Lee. 2015. Development of Agenda Priority for Nursing Service Research and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1): 99-110.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1.99

Park, Y. J. 2014. A Study on Ego-resilience, Disaster-experience and Core Competencies of Emergency Room(ER)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Parrish, A. R., S. Oliver, D. Jenkins, B. Ruscio, J. B. Green, and C. Colenda. 2005. A Short Medical School Course on Responding to Bioterrorism and Other Disasters. *Academic Medicine.* 80: 820-823. http://dx.doi.org/10.1097/00001888-200509000-00007

Rheem, S. 2014. *Conceptual Inquiry and Policy Challenges on Disaster Management 3.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4(4): 213-222.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Seoul. 2014. *Secure Republic of Korea-checks the Emergency Care System.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3&articleKey=1527(2015. 4. 1)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Korean Dictionary, 2014.*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경희, 엄동춘, 남은숙. 2012. 일 지역 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대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3): 424-435.

김주원. 2011. 재난시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의 업무지침 개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안은경, 김선경. 2013. 간호학생의 재해관련 경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 및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 디지털융복합연구. 11(6): 257-267.

박유진. 2014. 응급실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재난에 대한 경험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제처. 20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복지부. 2014. 2015 기금운용계획안.

소방방재청. 2014. 2012 재난연감.

안은경, 금경림, 최선영. 2011. 일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의 재해대비상태에 대한 조사. 군진간호연구. 29(1): 94-109.

오의금, 장연수, 공새롬, 이윤주. 2015. 간호서비스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우선순위과제 도출. 간호

www.kci.go.kr

행정학회지. 21(1): 99-1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4.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상급종합병원용 ver 2.0.
이옥철 구정아 김옥숙 김은경 류은경, 박선영, 송예헌, 이순희, 이헌근, 임현자, 전화연, 홍윤미. 2006. 응급 및 재해간호. 서울: 현문사.
임상규. 2014. 재난관리 3.0의 개념적 탐색과 정책적 과제. 한국방재학회지. 14(4): 213-222.
천병철. 2014. 재난의 정의, 분류 및 공중보건학적 의의. 의료정책포럼. 12(4): 10-23. 24-31.
최남희. 2005. 재난 생존자 경험의 내러티브 분석-재난 간호를 위한 제언-. 대한간호학회지. 35(2): 407-418.
최명애, 방경숙, 김남초, 김신정, 김용순, 김화순, 류은정, 박영임, 소향숙, 신성례, 오경옥. 2012. 2011 동아시아 간호포럼(EAFONS) 초록분석을 통한 아시아 간호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332-342.
최재욱, 김경희, 이은선. 2014. 우리나라 재난의료의 현황과 향후 방안. 의료정책포럼. 12(4): 10-23.
표준국어대사전. 2014.
홍기정. 2014.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 12(4): 41-46.

우정희: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2012년 8월), 현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및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교수-학생 상호작용법, 연구방법론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다중회귀와 회귀나무를 활용한 군인우울 예측 연구(2014),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특성고찰: 자기애적 성격과 권위주의적 성향을 중심으로(2015)” 등이 있다(createjane@konyang.ac.kr).

유재용: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 Factors Affecting Trajectory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OPD Patients, 2013년 8월), 현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 및 간호비교효과성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health trajectory, 근거기반간호실무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vidence-based Practice for Pain Management for Cancer Patients in an Acute Care Setting (2013)″, ″Effects of a Three-month Therapeutic Lifestyle Modification Program to Improve Bone Health in Postmenopausal Korean Women in a Rural Communit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14)″ 등이 있다(jaeyong@konyang.ac.kr).

박주영: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The Effect of Comprehensive Self-management Program Promoting Self-efficacy on Compliance and Glycemic Control for Type 2 Diabetics in Community Health Center. 2011년 2월), 현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응급ㆍ재난, 급ㆍ만성 질환의 자가관리 및 이행, 질문수업, 간호교육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테러 등 위험지역 파병군인의 우울 측정도구개선 방안(2014)”, “대학생의 질문저해요인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2015)” 등이 있다(jypark@konyang.ac.kr).

www.kci.go.kr